

	수 요 예 배	금 요 예 배	대 청 예 배
사 회	김태형 목사	김태형 목사	선태희 청년
설 교	김태형 목사	김태형 목사	김태형 목사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사도신경
기 성 경 봉	김채희 집사	합심기도	이지용 청년
설 교 소	사 7:1~2	딤후 3:16~17	마 6:9~13
현 실 과 말 씀	347장	성경의 절대권위	주기도문
회 소	설 교 자	347장	말씀 나눔
교 금 식 도	설 교 자	설 교 자	사 회 자
축	설 교 자	설 교 자	설 교 자

## 교회소식

★ 오늘 교회에 처음 출석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여름 수련회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 주말(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사회자를 세울 계획입니다.
- 교회 행사 사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추천 바랍니다.
- 자원한 교회 청소구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선청년 무릎 수술 후 회복 중. 기도합니다.(순정병원 입원치료)

※ 광양백석교회 카페 <http://cafe.daum.net/..daumchurch>

## 예배담당 및 봉사

구 분	주일예배기도	수요예배기도	구 분	대청예배
다 음 주 예 배 위 원	엄태순 권사	김사라 집사	사 회	김은승 청년
			기 도	선태희 청년
사 회	김태형 목사	피 아 노	김언약, 전소연 청년	
안 내	김종애 권사	헌 금	김영현 장로 · 김태현 안수집사	

※ 주방봉사06월14일 : 장정숙 권사  
 ※ 주방봉사06월21일 : 장애지 집사

## 예배시간안내

구 분	예 배 시 간	구 분	예 배 시 간
주 일 예 배	(일) 오전 11시	수 요 예 배	오 후 8시 30분
오 후 찬 양 예 배	(일) 오후 1:30분	금 요 예 배	오 후 8시 30분
학 생 예 배	(일)9시30분 각예배실	새 벽 예 배	새 벽 5시 30분
유치부(태영아)예배	(일)10시10분 유아실	대 학 청 년 예 배	(토) 오후 8시 30분

창립일 2008. 5. 18.

제19권 제 24호.2026.07.1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주 일 예 배	오 전 11시	설 교	사 회
오 후 찬 양 예 배	오 후 1시 30분	김태형 목사	김태형 목사

- 개 회 송 영 찬양대
- \* 찬 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 \* 교 독 문 46.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을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 \* 찬 송 349 나는 예수 따라가는
- 대 표 기 도 김태현 안수집사
- 받 을 말 씀 창 6:1~4
- 찬 양 대 《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
- 설 교 육신이 됨이라
- 헌 금 / 찬 송 347 허락하신 새 땅에
- 성도의 교제 교회소식 및 새 가족 환영
- \* 주 기도문 송 635장 / 하늘에 계신
- \* 축 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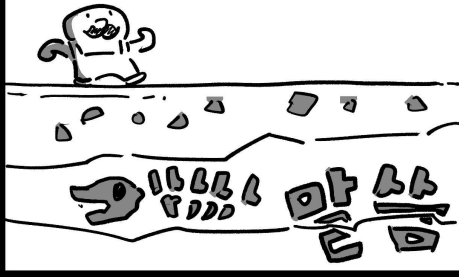
광양백석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우)57782 전라남도 광양시 증마용소길 43 (지번 : 증동1375-3) / 담임목사 김태형 ☎ 010-8600-5948

# 육신이 됨이라 (창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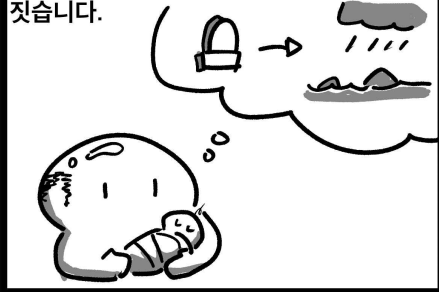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믿음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석토 속에 파묻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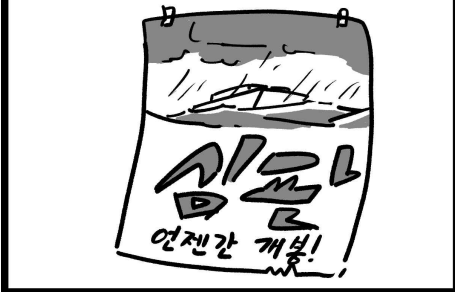
믿음의 인물들은 점차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았죠.



아담의 후손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므두셀라  
'그가 죽는 후에 심판이 보내질 것이다' 라고  
짓습니다.



다른 말로 노아 때 갑작스레 심판이 내려진 게  
아닌, 이미 이 때 심판이 예고됐던 것입니다.



므두셀라는 자신의 이름 뜻을 자식들에게  
전했으나 그 중 그 말을 받아들인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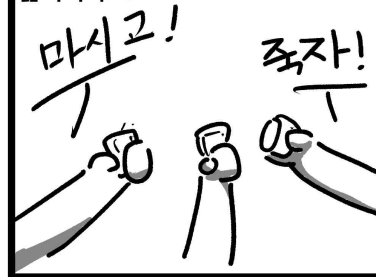


단 하나, 라멕 뿐이었죠. 그의 자녀들마저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 육신이 됨이라 (창6:1~4)

왜? 그야 언약 따위 잊고 살아도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다 훨씬 즐거운  
삶이니까요.



이건 본문 4절에 잘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결혼하며 살았다고 나오죠.



그들을 네펠림, 하나님을 거역하는 강력한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커녕,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데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삶을  
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건 보기에 성공하고 좋은 삶인 것 같지만  
결국엔 심판당해 죽을 삶이기 때문입니다.

